

##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추진”...정부·지자체 협업 첫걸음

101종에 이르는 멸종위기종이 존재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분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남북이 공동 등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진 가운데,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DMZ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관할 지자체가 함께 준비한 자리입니다.

문화재청은 주무부처로서 대북 협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획득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강원도는 DMZ의 문헌과 실태를 조사하고, 학술연구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결과 정쟁을 평화와 환경, 인권, 사람 사는 장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북한과의 공동 노력이 쉽지만은 않을텐데, 어려운 상황에서 새 길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전쟁과 비극, 분노의 땅이 이제 평화와 번영, 용서, 화해의 땅으로 바뀐다는 뜻이 이 자리에 있다"며 "앞으로 온 세계 시민이 함께하는 평화의 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허리를 약 4km 폭으로 가르고 있는 DMZ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첫 복합유산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뒤 어느 방향으로 등재를 추진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기관은 오는 10월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속도 낸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강원도와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DMZ를 남북 평화 상징으로 변화시키고, 세계유산 등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비극의 땅인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평화와 희망과 인권의 땅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남북협약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남측 대표기관으로 대북 협의를 주관하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 참여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재청이 학술 연구와 함께 관련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학술연구를 지원하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안에 실무협의체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세 기관은 연말까지 DMZ와 접경 지역 문화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효경 기자 (snowdrop@mbc.co.kr)

## 'DMZ를 남북 공동 세계유산으로' 문화재청·경기·강원도 업무협약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이 함께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 위해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후 경기도, 강원도와 서울 한국의집에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대북협의를 주관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꾸러나갈 예정이며 경기도와 강원도는 협력과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문화재청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공동등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 기초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유산 가치가 높고, 전쟁의 상흔뿐 아니라 궁예가 세운 태봉국 철원성 유적도 남아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지금 절호의 기회"

경기·강원·문화재청,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공동추진 합의



11일 서울 한국의 집 소회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함께 추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오늘(11일)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집 소회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남북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대북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비무장지대(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와 관련한 참여 기관의 역할과 협조 사항,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체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 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문헌·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북협의 주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청신호 켜졌다

경기·강원도·문화재청 공동 추진
북한 참여·성과 도출 협력 등 나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에 경기도와 강원
도, 문화재청이 함께 추진키로 하고 서울
한국의집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 참
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DMZ 세계유
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 문헌·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을 담당한
다. 문화재청은 대북협의 주관, DMZ 세계
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주관한다.

3개 기관은 협약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이 남북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며 "대북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DMZ가 세
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숙 문화재청
장은 "한반도 평화의 바람 중심에는 비무
장지대가 있다"며 "남과 북이 함께 비무장
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
면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온전
히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김희철 기자 kanghc@knib.co.kr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

경기·강원·문화재청 '업무협약' 합의- 통일부 등과 협의

경기·강원도와 문화재청이 비무
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
도지사, 장재숙 문화재청장은 11일

오후 서울 한국의집 소회당에서 이
런 내용을 담은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 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
역,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
한 기초·문헌·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을 담당하기
로 했다. 문화재청은 대북 협의 주
관,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주관하기로 했
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사항 실천
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해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
산 등 두 가지 유산 성격을 모두 갖
춘 혼합유산으로 분류된다. 한반도
해리물역 4km 폭으로 거느리는 DMZ
는 우리나라 첫 혼합유산 후보로 거

론되기도 한다. DMZ는 한국전쟁
이후 인간발달이 거의 닿지 않아 생
태계가 보전했다는 점에서 자연유
산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재숙 문화재청장은 "남과 북이
함께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
로 등재한다면 남북 화해와 항구적
평화를 앞당기고, DMZ의 자연과
역사, 문화는 온전히 보존해 후대에
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 기자 kyong@kyo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 “남북, DMZ 세계유산 공동 등재” 문화재청·경기·강원도 손 잡았다

### 이달 내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생태계 보전-분단서 평화 상징  
문화재청, 南 대표로 北과 협의  
국제 심포지엄·특별법 추진도

강구열 기자 river910@sogye.com

문화재청이 경기도, 강원도와 손잡고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에 속도를 낸다.

문화재청은 정재숙 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남북 화해와 평화 상징으로 변화시키고, 세계유산 등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협약의 관련에 문화재청은 남측 대표기관으로서 대북 협의를 주관하고,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 참여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한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기 위한 학술연구 주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잠정 목록 등재·신청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DMZ 문헌·

실태 조사를 하고, 학술연구를 지원하며, 등재신청서를 작성한다.

세 기관은 우선 이달 안에 실무협의체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DMZ와 접경 지역 문화재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지난 3월 출범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지자체가 공동 개최해 DMZ 문화재의 종합적 보존관리 방안을 만들고,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도 협력한다. 오는 25일 예정인 3차 포럼을 포함해 12월까지 예정된 4차례 포럼은 경기도·강원도와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유산 성격을 모두 갖춘 혼합유산으로 분류된다. 한반도 허리를 약 4㎞ 폭으로 가르는 DMZ는 우리나라 첫 혼합유산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6·25전쟁 이후 인간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생태계가 보전됐다는 점에서 자연유산 가치가 충분하고, 공예가 10세기 강원도 철원에 세운 계획도시인 태봉국 철원성과 철원 노동당사 등 6·25전쟁과 관련된 유산이 적지 않아 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도 협의해 DMZ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강원 손잡고...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첫발

이재명·최문순지사, 문화재청과 MOU  
"남북미 판문점 만남... 평화공존 재확인"

이달 중 협약 실천 실무협의회 구성도  
연말까지 '생태계 보고' 문화재 조사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정재숙 분화재청장이 11일 서울 증구 한국의집에서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만남으로 DMZ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임을 재확인했다"면서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은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와 관련한 참여 기관의 역할과 협조사항,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체제 방안을 포함한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복합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문화·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정재숙(가운데) 문화재청장, 최문순(오른쪽) 강원도지사가 11일 서울 증구 팽동 한국의 집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순 기자 seo@seoul.co.kr](mailto:seo@seoul.co.kr)

등을 담당한다. 분화재청은 남북 협의를 주관하고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달 중 협약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나아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연말까지 DMZ와 접경 지역 문화재를 조사한다.

앞서 이 지사는 20세기 전쟁의 상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DMZ을 전 세계가 기억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며 올해 초부터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중점 공약

으로 추진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3월 DMZ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남북공동추진을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분화재청에 건의한 데 이어 4월에는 국회의원 40여명과 함께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로 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25인과 12월로 예정된 3~4차 포럼은 경기도, 강원도와 공동 주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DMZ 문화재의 종합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병철 기자 kychu@seoul.co.kr](mailto:kychu@seoul.co.kr)

## 한반도 DMZ 세계유산 등재 '첫걸음'

문화재청·경기도·강원도

유네스코 DMZ 등재 추진

인류 역사상 세 번째 비무장지대(DMZ)인 한반도 DMZ를 남북 공동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한반도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정재숙 청장은 "한반도에 평화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변화의 중심에 우리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가 있다. 남북 화해와 항구적 평화를 앞당기는 유의미한 걸음에 경기도, 강원도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함께 남북협의를 주관하고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측 참여와 성과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DMZ는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땅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민에게 DMZ는 버려진 땅이자 고통의 땅이었다. 전쟁과 비극의 장소가 이제 평화와 용서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길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DMZ는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를 뜻한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된다. 한반도 DMZ는 협정 조인 당시 양측 군대의 대치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구분한 뒤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후퇴해 4km의 폭을 갖는 지역을 뜻한다. 김유태 기자

## 머니투데이



문화재청·경기·강원도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협약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DMZ(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가운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상징적 공간인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문화재청

'DMZ 세계유산 등재' 道·강원·문화재청 힘 모은다

〈남북공동〉

3기 기관 'MOU' 기초조사·신청서 협력 문화재청 대책 협의 주관기보
주지사 "추진 결호의 기회"... 지방정부 남북교류 활성화 '마중물' 기대

경기도가 남북 공동으로 DMZ(대무장지대)의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여서, 대무장지대 등재 추진이 북한 정부와 남북 교류를 활성화 시킬 마중물 이 될 전망이다.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함께 '대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남북회담본부의 판문점 담판으로 대무장지대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이 남북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대무장지대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남북공동추진을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 했다. 이어 4월에는 국외에서 관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인류 공통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목적이므로 세계

인 가치를 담고있는 것이 세계유산 등재의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대무장지대 평화로·김정선 천연보호구역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하는 권역도 고려되고 있다.

또 자연유산 산장, 문법 등 전통유기 종의 보존보호책도 활용되고 있다는 원도 대무장지대의 가치도 꼽았다. 심포지엄에서 원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는 "대무장지대와 관련된 계획이 현재는 남북 양측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계약을 잘 세어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지역경제가 재발흥되면 대무장지대 평화이슈에 총연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자리에서 연장을도 경기대학교 교수는 "대무장지대에 남아 있는 6·25 참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남북관계 재평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11일 오후 서울 한국의 집 소공동에서 열린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협약식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북측이 대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에 한 여하도록 노력하고, 기초 조사를 함께 진행키로 했다. 등재신청서도 협정서 기재된 경기-강원이 협의 작성한다. 무역채널을 통해 연례를 주고받고, 비

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한반도에 평화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무장지대가 있다. 남북 북이 힘

겨 대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 남북 화해를 앞당기고, 자연은 물론 문화를 온전히 보존해 후대에 전하는 값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신경민 기자 kjk@koreansp.com)

평화 싹트는 'DMZ' 세계유산 南北 공동등재 추진

한반도 분단이 낳아온 비극을 이어 온데 보코프 회개하는 대무장지대(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세워왔다. 경기도, 강원도, 문화재청이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고공합동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11일 문화재청에서 정·관·민을 아우르는 DMZ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DMOU)을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경기도·강원도·문화재청 업무협약 등재 성공형 도내 4번째 세계유산 이남 중 실무협의체 꾸어 첫 회의 후 지사 "한반도 재평의 장 풍지부"

한반도에서 이뤄진 DMZ(대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1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함께 '대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에서 이뤄진 DMZ(대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1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함께 '대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특수연구를 지원한다. 실제 심의를 지원한다. 서울 기관은 여타 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DMZ, 세계유산 등재할 공적으로 내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무장지대 평화로·김정선 천연보호구역'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하는 권역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양측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남북 양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지역경제가 재발흥되면 대무장지대 평화이슈에 총연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오후 서울 한국의 집 소공동에서 열린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협약식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道·강원·문화재청 'DMZ 유네스코 등재' 맞손

### 남북공동 등재 추진 업무협약 실무협 꾸려 정부기관 협의도 李 "대북협의로도 착실히 준비"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1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집 소회당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와 관련한 참여 기관의 역할과 협조사항,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체제 방안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 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문헌·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을 담당한다.

문화재청은 ▶대북협의 주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주관한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남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만남으로 비무장지대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임을 재확인했다. 지금이 남북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대북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비무장지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비무장지대가 있다"며 "남과 북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면 남북 화해와 항구적 평화를 앞당기고,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온전히 보존해 후대에 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는 이재명 지사의 중점 공약이다. 도는 20세기 전쟁의 상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최근 평화의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전 세계가 기억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에 힘쓰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비무장지대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남북공동추진을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며 4월에는 국회의원 4명과 함께 'DMZ를 세계유산으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김수연기자



'화해·평화의 상징 DMZ' 공감 11일 오후 서울 한국의 집 소회당에서 열린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맞손

경기도·강원도·문화재청  
협약 실천 실무협의회 구성  
이재명 지사 "지금 철호의 기회"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1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 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문헌·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을 담당한다.

문화재청은 ▲대북협의 주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회 구성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국방부·통일부 등 관련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남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DMZ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임을 재확인했다. 지금이 남북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대북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비무장지대(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남과 북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 남북 화해와 항구적 평화를 앞당기고,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온전히 보존해 후대에 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는 이재명 지사의 중점 공약이다.

도는 20세기 전쟁의 상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최근 평화의 공간으로 부각되는 비무장지대(DMZ)를 전 세계가 기억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3월 비무장지대(DMZ) 보존관리의 세계유산 남북공동추진을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4월에는 국회의원 45명과 함께 'DMZ를 세계유산으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경기-강원-문화재청 업무협약  
이재명 지사 "평화의 공간 조성"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함께 추진(본보 6월 25일자 3면 보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1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외대 소호당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와 관련한 참여 기관의 역할과 협조 사항,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체제 방안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

측 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문헌·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대북 협의의 주관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실무협의회 구성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3개 기관은 협약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DMZ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해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남·북·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DMZ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임을 재확인했다. 지금이 남북 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대북 협

의를 착실히 준비해 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DMZ 보존·관리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추진을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며, 4월에는 국회의원 45명과 함께 'DMZ를 세계유산으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k2@kjhilbo.co.kr

# 인천일보

2019년 07월 12일 (금)

종합

01(경기판)면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 경기-강원-문화재청 힘 합쳤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문화재청과 힘을 합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1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도는 강원과 함께 ▲복합 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문헌·실태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대북협의 주관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주관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DMZ 세계유산 등재는 이지사의 중점 공약이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DMZ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남북공동 추진을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에는 국회의원 45명과 함께 'DMZ를 세계유산으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만남으로 DMZ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임을 재확인했다. 지금 이 남북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대북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bakal@incheonilbo.com